

목포·진도 수목의 향연에 물들다

전남 국제수목비엔날레 개막 61일 대장정 돌입

15개국 271명 참여...수목화 그리기 등 전시·체험 다채

전통회화를 테마로 한 국내 첫 국제미술 행사인 '2018 전남 국제수목비엔날레'가 지난 31일 목포문화예술회관에서 개막식과 함께 다음달 31일까지 61일 간의 대장정에 들어갔다.

이번 국제수목비엔날레 한국·중국·일본 등 아시아권을 넘어 프랑스·독일·미국·호주 등 세계 15개국 작가 271명이 참여, 312점의 수목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목포 문화예술회관을 주 전시관으로 목포와 진도에 각각 3곳씩 6곳에 전시관이 마련됐고, 지역의 특성을 살려 목포에서는 '현대수목의 재창조'를, 진도에서는 '전통수목의 재발견'을 테마로 수목 플라보로에

선, 수목의 탈공간화, 남도화백의 전통, 한·중·일 수목의 변천사 등 수목의 진면목을 엿볼 수 있다.

개관 첫 주말·휴일에 6005명의 관람객이 수목 작품을 감상했다. 첫 관람자는 일본 고베에서 온 요코 나카가와(여·65) 씨였다. 아마추어 화가인 그는 "좋아하는 작품들에는 공동된 느낌이 있다. 그 작품을 보노라면 내가 그 속으로 녹아드는 것 같고, 작품 스스로 숨을 쉬는 날숨의 공기가 느껴진다"고 관람 소감을 밝혔다.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 단체관람객 72명도 진도 운림산방을 찾아 진도권 전시장을 둘러봤다.

각 전시관에는 전시작품 해설사(도슨트)가 배치돼 전시 작품의 해설을 들을 수 있다. 전시관별로 정해진 시간에 운영되며, 단체관람객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도 지원된다.

수목비엔날레 기간 수목화 그리기, 수목 캘리그래피, 만장 미술제 등 체험·부대행사도 공연도 이어진다.

한편, 지난 31일 목포 문화회관에서 열린 개막식에는 비엔날레 참여작가, 김영록 전남지사, 나종민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주한 외교사절단, 박지원 의원 등 지역 국회의원, 홍보대사인 영화배우 김규리 등 국내외 초청인사 700여명이 참석했다.

수목의 매력을 소리와 깃발 군무로 표현한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김 지사의 개막선언, 김상철 총감의 경과보고와 전시 소개가 이어졌다. 목포시립 소년·소녀 합

창단과 진도 강강술래 보존회는 공연으로 대장정의 시작을 알렸다.

개막식 전에는 '수목과 현대미술, 간극과 접점'을 주제로 한 국제학술회의가 열려 한국·일본·홍콩·호주 등 전문가들이 현대미술과 수목에 관한 담론을 펼쳤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전남은 수목을 세계인과 함께 나누고 즐기고자 국제비엔날레를 시작한다"며 "탁 트인 야외 공간을 무대 삼아 지역과 지역을 잇고 도시 전체를 커다란 전시장으로 꾸민 만큼 동양과 서양이 한데 어울리고 과거·현재·미래가 만나는 화합의 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입장권은 티켓링크 또는 비엔날레 홈페이지(sumukbiennale.org), 목포문화예술회관, 진도 운림산방에서 구매할 수 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나주 왕곡면 172만㎡ 에너지신산업단지 확정

사이언스 파크 조성 탄력

나주 혁신도시 인근 나주시 왕곡면 일원 172만㎡ 규모가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최종 확정됐다. 이에 따라 에너지사이언스파크 조성 1000개 기업 유치 등에 탄력을 받게 됐다.

2일 전남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나주 혁신도시 인근 나주시 왕곡면 일원 172만㎡(52만평) 에너지신산업 육성 지구를 선정했다. 이 곳은 2021년까지 에너지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조성될 예정이다.

이는 민선7기 핵심공약인 에너지신산업 육성을 위해 전남도와 나주시, 한국전력 등이 뜻을 모으고 역량을 결집한 결과다.

전남도는 이미 조성된 나주혁신도시(178만㎡)의 조기 분양으로 산업

입지 부족 문제가 예상되자 민선7기 최우선 국책사업 과제로 국가산업단지 유치 활동을 벌여왔다. 에너지신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기업이 들어올 공간(산단)이 절실하다는 판단에서다.

나주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는 앞으로 사업 시행자 선정,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검토, 개발계획 평가와 각종 영향평가를 거쳐 국가산업단지 최종 지정받은 후 본격적인 조성 사업에 착수하게 된다.

전남도는 태양광, 에너지저장장치(ESS) 및 차세대 전력기재 등 에너지 밸리에 투자를 바라는 에너지신산업 선도기업들에게 산업유지를 제공할 방침이다. 선도기업들이 입주하면 민선 7기 1000개 기업 유치 계획도 차질없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광주시, 자치구 인사교류 제도화

시-5개 자치구 협약 체결

광주시가 일선 구청에 부구청장을 파견하고 대신, 구청 공무원을 시청으로 전입하는 등의 인사 교류를 제도화한다. 앞서 지난 민선 6기 때 일부 구청에서 시의 부구청장 파견에 반발해 그동안 광주시와 자치구간 인사교류가 일부 중단된 상태다.

2일 광주시에 따르면 오는 4일 오전 11시 시청 중회의실에서 시·자치구 상생회의를 열고 지방분권 시대에 걸맞은 인사 독립성 존중과 인사교류 활성화를 위한 '시-5개 자치구 인사교류 협약'을 체결한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인사교류협의회와 인사교류 실무협의회 구성 ▲부구청장·기술서기관 등 인사교류 ▲7급 이하 결원 충원(전입) ▲자치구 결원 충원(신규채용) ▲희소직렬 인사통합 ▲자치구 직원의 시 파견근무 및 계획 인사

교류 추진 등이다.

특히 광주시와 5개 자치구는 부구청장 인사교류에서 1대 1 교류를 원칙으로, 부구청장(3급) 결원이 발생할 경우 해당 자치구의 자체승진 또는 부구청장 요원을 시에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자체승진 시에는 자치구 3급 승진자와 시 국장 요원을 서로 교류하고 부구청장 요원 요구 시에는 사전협의 등을 통해 4급 또는 5급 1명에 대해 시 전입을 원칙으로 했다.

또 자치구에 기술서기관 결원 발생 시에는 '자체승진'을 원칙으로 하되 교류 시에는 시 4급과 자치구 4급 교류, 또는 동일직렬(직류) 5급 1명을 시로 전입할 수 있도록 했다.

시의 7급 이하 결원 충원은 자치구 전입 50%, 신규 충원 50% 비율을 원칙으로 2019년부터 전입하는 모든 직렬에 필기시험을 시행하기로 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광주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공개 앞두고 실태조사

매년 11월 셋째주 수요일 공개

광주시는 오는 11월 14일 1000만원 이상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를 앞두고 9월 3일부터 28일까지 체납자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선다.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는 매년 11월 셋째 주 수요일을 명단공개일로 정하고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하고 있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체납 발생일부터 1년 지난 지방세가 1000만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을 관보 또는 시

보, 정보통신망이나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 등으로 체납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시는 그동안 1차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열어 384명 213억원의 법인세 개인에 대한 명단공개 대상자를 선정하고 명단 공개 대상자에 대해서는 사전안내문을 발송했다. 공개 대상자는 법인 71명 90억원, 개인 313명 123억원 등이다.

체납자가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되려면 오는 9월 11일까지 소명자료를 제출해 심의를 받거나 9월 말까지 체납 세금을 전액 또는 30%이상 납부해야 한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시·대구시 달빛내륙철도 조기건설 국회포럼

오늘 오후 3시 국회도서관

내륙철도 역할·필요성 논의

광주시와 대구시가 달빛내륙철도 조기 건설을 위한 국회포럼을 3일 오후 3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개최한다.

달빛내륙철도 경유지 10개 지방자치단체(광주시, 대구시, 담양군, 순창군, 남원시, 장수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고령

군)과 지역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국토교통부가 후원하는 이번 포럼은 해당지역 주민과 학계 전문가, 정부 관계자,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는 달빛내륙철도의 기능과 역할, 필요성, 내륙지역 어려움과 상생을 위한 방안, 남북철도와 연계를 통한 남북 경협사업의 수혜지역 확대, 사업 조기추진 방안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다.

포럼은 한국교통연구원 이호 박사의 '남부 신경제권 형성을 위한 달빛내륙철도 구상'을 주제로 한 기조발제, 광주대 최완석 교수가 좌장을 맡고 분야별 전문가 8명이 패널로 참여하는 토론회 순으로 진행된다.

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 건설 사업은 6조원 이상을 투입해 양 도시 간 191km 구간을 고속화철도로 건설하는 내용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영호남 상생공약으로

채택했으며, 국가운영 5개년 계획에도 반영됐다.

광주시와 대구시는 지난해 7월 '달빛내륙철도 건설추진협의회'와 올해 3월 '달빛내륙철도 경유지 지자체장 협의회' 등을 꾸리며 본격적인 추진 의지를 모으고 지난 6월부터는 자체연구용역에 들어갔다.

앞으로는 국비확보를 통해 중앙정부 주도의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하고 광주시 등 10개 지자체와 지역 국회의원 등이 힘을 모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신규 사업으로 전환시킬 예정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부동산 실무전문가 박관식대표의 특별세미나

“상반기 전국 땅값 들썩” 가장 떠오르는 토지시장은 어디인가?

새정부의 8·2 부동산 대책과 계속되는 부동산 안정화 정책들... 아파트, 상가, 재개발, 재건축 등 주택시장은 어떻게 움직일까? 각종규제·공급과잉·금리인상 등으로 인한 떠오르는 토지시장의 해답은 무엇일까?

남·북관계 개선에 따른 경기북부지역의 전망은? 국가에서 개발하는 신개발지를 찾아라

행복한 부동산강의와 상담이 함께하는

[박관식 전문가의 방송 안내]

▶ WOW 한국경제TV '박관식의땅땅땅' 생방송 출연중!! (매주 일요일 저녁7시(본방) / 밤11시(재방))

박관식 대표

- 한국토지개발원
- 한국경제TV '박관식의 땅땅땅' 생방송 출연중
- RTN 부동산TV '땅,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출연
- MTN 미니투데이 '박관식의 TV 토지이야기' 출연
- 한국경제TV '부동산재테크 NOW' 출연
- 한국경제TV '부동산화랑' 출연

류태욱 전문가

- GTV "통큰부동산" 출연중
- GMTV 출연중
- NOLL TV 출연중
- COOK TV 출연중
- 생활체육 TV 출연중
- 토마토TV "머니맨" 출연
- FUN TV "부동산매거진" 출연
- 서울경제TV "똑똑부동산" 출연

무료 특강 일시 및 장소

광주

- 일시 : 2018년 9월 5일(수) / 오후 2시~5시
- 장소 :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214호 (광주시 서구 치평동 1159-2) (1호선 김대중컨벤션센터(마리엇)하차 5분출구 직진 200m(3분소요))

* 당일 혼잡할 수 있으니 사전접수 바랍니다 ※ 특별 무료상담 진행

(KLD) 한국토지개발원

부동산세미나 문의 : 02)595-4236, 4237

"한국토지개발원"을 검색해서 친구추가를 해주세요.